

사찰 건축물과 불의 위계

김봉건 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목차

- I. 서론
- II. 가람배치
- III. 건축형식
 - 1. 상단(上壇) 전각
 - 2. 중단(中壇) 전각
 - 3. 신중단(神衆壇)
 - 4. 소결
- I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정, 지방지정 문화재 112개 사찰건물을 대상으로 사찰의 가람배치와 건축형식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찰 건물을 불, 보살, 신중의 3단 신앙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람배치에서는 상단 영역에서 주불전과 기타 불전의 배치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병렬, 교축, 중축, 독립의 4개 형태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의 전각들은 불교적 우주관과 연계된 동심원적 구조와 유사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건축형식에서는 평면, 지붕, 공포, 창호, 천장, 불단 등을 분석한 결과 전각들이 3단위계에 따라 건물규모, 가구형식, 내외 의장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불, 보살, 신중, 3단신앙, 유사 동심원적 배치, 불교적 우주관,
건물규모, 가구형식, 의장

I. 서론

사찰 내에는 존상을 봉안하고 예배하는 불전, 승려들이 수행하고 생활하는 건물, 재가신도들이 이용하는 건물 등 다양한 성격의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얹혀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종교건축으로서 사찰 내에서 예배용도의 불전 건물이 가장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불전건축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규명해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봉안된 존상의 차이에 따른 건축적 변화로 판단된다. 이는 종교건축으로서 공경대상에 대한 불교도들의 인식의 차이가 건물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전 내 봉안하는 존상들은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인 부처(佛), 스스로 깨달음을 이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워 현재 윤회의 세계에 머물러있는 존재인 보살(菩薩), 불법을 수호하고 옹호하는 신중(神衆) 등이다. 따라서 가람 내 각종 건물들은 이들 3단 체계¹⁾에 따른 위계가 건축물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3단 내 건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가는 이견이 많으나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표1)를 적용하였다.

〈표 1〉 전각 위계 분류표

불단	보살단	신중단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약사전 미륵전	영산전 나한전 문수전 명부전 관음전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삼성각 천왕문 등 신중문

본고에서는 불, 보살, 신중들의 위계차이가 건축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계차이는 주로 가람 내 건축물의 배

1) 김봉렬, 1989, p.31-33. 김봉렬은 관음전을 상단전각에 포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중단으로 분류함

치와 건축형식에 반영되므로 이들 2가지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건축물 분석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 유형문화재를 선정하였다. 다만 지정문화재 수량이 적은 경우 문화재자료 등 일부 포함하였으며,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가람배치

가람 내 건물들의 배치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몇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전통건축의 주된 재료가 나무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공간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규모의 건물들을 여러 채 만들어 필요한 수요를 분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건물들의 집합체와 외부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는가에 따라 전체 건축의 질이 좌우²⁾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지형 조건에 따른 제약의 문제이다. 현존하는 고대사찰들이 평지에 입지하던 것과 달리 현존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 산지에 건물을 배치할 경우 평지에서 넓은 면적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과 달리 넓은 영역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결과 지형 경사에 맞추어 여러 개의 단을 형성하여 대지를 마련하고 건물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배치의 변화를 낳게 하였으며 공간의 풍부함과 역동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2) 김도경, 2012, p.15-16

셋째는 불교교리의 변화에 따른 배치상의 영향이다. 삼국시대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삼국시대 교학불교에서 고려중기 이후 종파불교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였으며 종파적 특성은 자연히 가람배치에 많은 영향을 주어 종파별로 다른 가람배치 형식을 낳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조선왕조가 세워지면서 불교는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으며 자연히 종파적 특성은 거의 명맥이 단절되다시피 한다.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찰이 소실되는 등 피해가 극심하였다. 그러나 전란 중 승군의 활약 등으로 불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전란으로 상처를 받은 백성들이 마음을 의지할 곳으로 불교를 찾게 되었다. 그 결과 유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찰들의 부흥을 목인하게 된다. 대부분의 현존 사찰들은 이 시기에 면모를 대폭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 유행한 종파불교의 특색 대신 한국불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통불교³⁾적 양상이 가람배치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원래 소의경전에 따른 하나의 불전을 건립하는 원칙과는 달리 여러 개의 소의경전에 따른 다불전(多佛殿)⁴⁾이 건립되는 양상을 의미한다. 많은 수의 불전이 하나의 가람에 위치할 때는 이들 불전들의 상호 관계를 어떤 원칙과 질서 하에 구성할 것인가 가람배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는 종교건축으로서 불교건축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상징이 아닌 것이 없다⁵⁾고 할 정도로 불교적 인식이 곳곳에 담겨있다. 이와 관

3) 김영태, 1986, p.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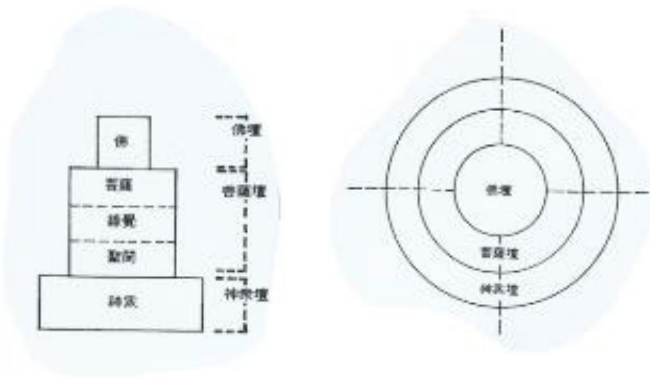
4) 김봉렬, 2000, P.38

5) Dietrich Seckel, 1985, P.274

련하여 불교적 우주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의 우주관은 고대인도인들의 세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10개로 구분하고 있다. 미한세계로서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의 6종과 깨달음의 세계는 성문, 연각, 보살, 불 등의 4종으로 상정하고 있다. 깨달음이 미흡한 6종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나 나머지 4종은 윤회의 틀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불교의 십법계설은 중생의 마음가짐과 수행의 정도에 따른 분류이지만 이는 곧 깨달음의 정도가 서로 다른 10개의 존재가 살고 있는 우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교는 대승불교로 본인의 수행만을 추구하는 소승불교와 달리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행을 이상으로 하는 이타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승불교와 달리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불교신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0계를 수직적으로 인식하는 대신 이를 평면적으로 볼 때에는 중앙의 불을 중심으로 보살, 신중 등이 동심원적 나타나는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깨달음의 정도가 위계에 따라 표현되는 동심원적 구조는 보로도부르 사원의 탑⁶⁾이나 만다라 도형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불교 사찰을 속계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로 상징화한다고 이해한다면 십법계 중 인간계까지를 제외한 천상계 이상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 성문, 연각, 보살을 아우르는 보살, 완전히 깨달은 불 등 3단계의 위계를 가진 동심원적 구조(그림1)로 단순화하여 이

6) 기단부에서 중심으로 가면서 육계, 색계, 무색계와 관련된 상징을 조각하거나 봉안하는 등 만다라를 입체적으로 도식화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가람내 신앙의 위계구조(김봉렬 학위 논문에서 전재)

해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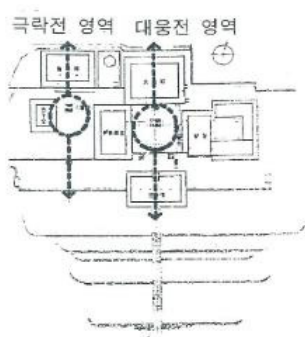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가람내의 건물배치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단순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여기서는 교리상의 위계 차이가 불전의 배치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주문을 지나 여러문을 지나 사찰 경내에 진입하는 것은 곧 깨달음의 세계에 진입한다는 의미이고 이곳에 상주하는 이는 불,보살,신중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찰 내 주불전이 하나인 경우에는 완주 화암사(그림2)와 같이 중축선을 따라 극락전 중심의 단일영역이 형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람은 소의 경전에 따라 각각의 부처를 봉안한 여러 전각들이 동일 가람 내에 배치되어 있다. 이 경우 불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배치된다. 예를 들면 봉정사(그림3)는 대

7) 서측 극락전은 정토세계, 동측 대웅전 영역은 사바세계를 상징화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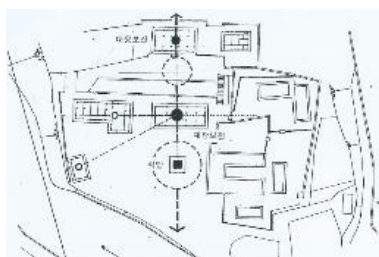
〈그림 2〉 완주화암사배치도



〈그림 3〉 안동봉정사배치도



〈그림 4〉 의성고운사배치도



〈그림 5〉 공주마곡사배치도



〈그림 6〉 양산통도사배치도



〈그림 7〉 금산사배치도

웅전과 극락전이 병렬축형⁷⁾을 이루고 있다. 괴산 각연사(그림24)는 비로전과 대웅전 영역이 경사진 축선을 따라 2개의 독립된 영역을 이루고 있다. 부산 범어사에서는 대웅전 좌우에 상단 불전인 비로전과 중단의 건물인 관음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공주 마곡사(그림5)의 경우에는 대광보전이 마당의 정점이 되는 곳에 위치하여 단일영역을 이루고 그 후면 경사지에 다시 대웅보전을 건립⁸⁾하고 있다. 즉 상당 불전들이 전후로 배치되고 있다. 금산사(그림7)의 경우에는 대적광전과 미륵전이 마당을 중심으로 교축형으로 영역이 만나고 있다.

양산 통도사(그림6)는 지형에 따라 상로,중,하로 등 3개의 영역으로 이뤄지는데 하로영역에는 극락보전,약사전을, 상로영역에는 대웅전을 배치하였다. 상로와 하로영역을 연결하는 축선상에 직교축을 이루면서 대광명전,관음전이 배치되어 있다.

여러 주불전들의 다양한 배치형식은 기본적으로 가람 중심영역에 가장 중요한 불전을 배치하고 다른 불전은 다양한 요인 등에 의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주불전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통불교 경향에서 주불전 중에서도 대웅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가람배치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중단 불전의 배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중단의 불전들의 배치는 다음 3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기림사에서는 대적광전 영역의 4동중정형 가람배치에서 한 측면에 웅진전이 배치되어 있다. 유사한 배치는 양산 장안사(그림8)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8) 마곡사는 원래 화엄계 사찰이었으나 통불교적 영향 아래 후에 대웅보전을 건립하였다.
홍윤식,1997,p.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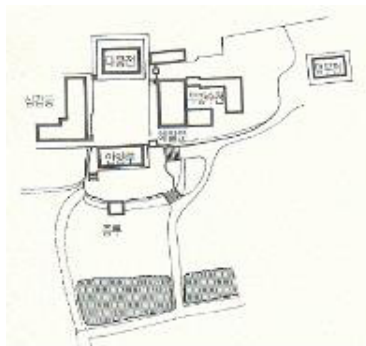
〈그림 8〉 양산장안사배치도



〈그림 9〉 여천홍국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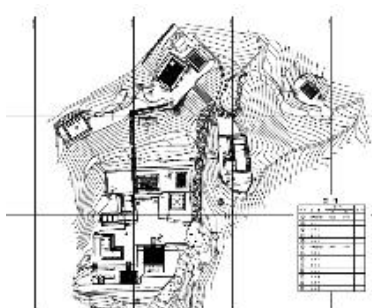
〈그림 10〉 고성옥천사배치도



〈그림 11〉 개심사배치도



〈그림 12〉 관룡사배치도



〈그림 13〉 장곡사배치도

는 대웅전 전면 좌우 측면에 명부전, 응진전을 마당을 에워싸는 형태로 구축하고 있다.

여천 홍국사(그림9)에서는 대웅전을 연결하는 축선 후면에 팔상전을 배치하였다. 고성 옥천사(그림10)에서는 주불전인 대웅전 측면과 후면을 둘러 싸는 모습으로 명부전, 나한전, 팔상전이 배치하였다. 개심사(그림11)에서는 대웅전 영역에서 무량수전을 지나 외곽 지역에 명부전을 따로 배치시키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 청도 운문사에서는 대웅전 영역을 벗어나 만세루 전면에 지장전과 관음전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서 주불전과 중단불전의 관계는 중심불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람의 양상에 맞추어 다양한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불전의 경우에는 사찰의 중요불전 상단 불전도 일정한 영역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나 중단 불전의 경우 별도의 영역을 이루기보다 주불전 주변에 다양한 모습으로 위치한다. .

산신각, 칠성각, 삼성각 등의 전통신앙과 부속전각 등 하단의 전각들은 가람의 중심영역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봉정사 삼성각⁹⁾은 극락전 좌측 구릉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주로 위치하고 있다. 관룡사 산신각(그림12)은 대웅전 우측후면에 건물 사이에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장곡사(그림13)의 경우에는 상대웅전에서 산정상으로 올라가는 쪽에 삼성각을 건립하였는데 전체 가람에서는 상당히 외진 곳이다. 범어사 산신각은 대웅전의 후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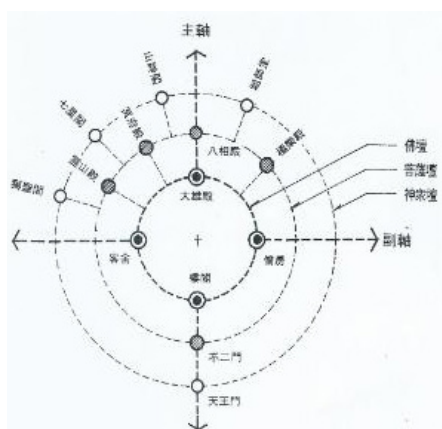
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11, 1989, p.65

큰 바위가 자리하여 경관상 눈에 덜 띄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이는 신중들이 전통신앙과 관련한 신들로 불교에 융합된 것으로 중심영역에 자리하기에는 위계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가람배치 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가람내의 불전 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일주문을 지나 진입축선상에 위치한 하단의 신중문을 지나 사찰의 중심 영역에 도달하면 이곳에 가람에서 가장 중요한 주불전이 자리하고 있다. 다불전 가람일 경우 주불전과 상단의 여타 불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병렬, 중축, 교축, 독립축의 다양한 형태로 배치된다.

중단의 불전은 주불전의 전후, 좌우 그리고 중심영역의 측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배치되고 있다. 하단의 전각은 주불전에서 가장 먼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3단 신앙에 따른 불전의 전체적인 모습은 가장 중심에 상단의 전각이 그 외곽에 중단, 그리고 가장 먼 곳에 하단

에서 신중단 이상의 영역을 수평적구조로 치환한 동심원적 형태(그림1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바로 불교적 우주관이 사찰 가람배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4〉 3단신앙의 가람배치개념도
(김봉렬 학위 논문에서 전재)

Ⅲ. 건축형식

건축형식은 건축물 구조와 의장을 합한 개념으로 이장에서는 건축물의 기본구조를 구성하는 평면규모,가구형식과 불교건축물로서 의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호,천장마감과 건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장엄물인 단집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 상단(上壇) 전각

1) 대웅전(大雄殿)

대웅전이란 명칭은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를 위대한 영웅이라 칭한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현존하는 사찰 불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찰의 대표적인 불전이며 가장 많은 수가 건립된 불전이다. 석가모니불 좌우에 보살을 협시하는 대신 아미타불과 약사여래¹⁰⁾를 모실 경우 격을 높여 대웅보전이라 하였다.

평면은 모두 장방형평면으로 정면 3칸 규모가 73.8%에 달하는 31개소이다.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조선시대 사찰 불전이 역불정책에 의한 경제적 위축¹¹⁾ 속에 지어진 불전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인 정면 5칸 규모가 9개이며 정면 7칸 불전은 법주사대웅보전 1개소이다.

건축형식을 살펴보면 전체 43개소 화려하고 장엄한 외관을 보여

10) 홍윤식, 1988, p.86

11) 전봉희, 이강민, 2006, p.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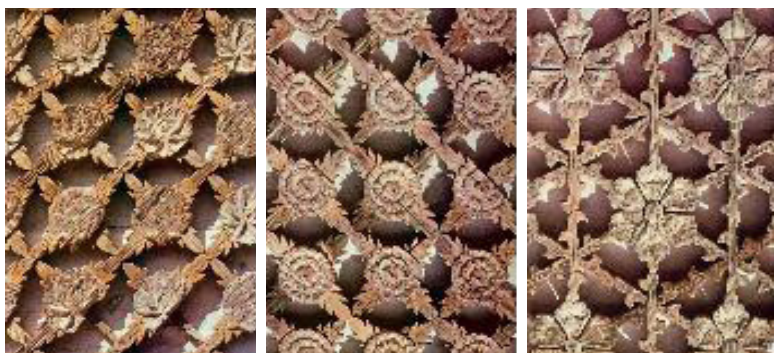
주는 다포 팔작집이 33개소로 주류를 이루어 사찰 배 중요불전으로서의 위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심포 맞배집은 수덕사 대웅전, 고산사 대웅보전 등 2개소인데 이들은 려말선초의 시대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범어사 대웅전 등 다포 맞배집은 8개소로 분석되었는데 이들은 다포의 화려함과 맞배지붕의 단순함¹²⁾ 등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분석대상 43개소 중 마곡사 대웅보전, 법주사 대웅보전 등은 중층 건물로 가람 내 중요 건물로서의 위계를 건물 층수에서도 보여 주고 있다. 마곡사 대적광전이 넓은 뜰에 자리하고 대웅보전은 그 후편의 좁은 경사지에 건립되었으나 여기에 중층의 대웅보전을 건립한 것은 가람내 위계가 높은 건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로 추정된다. 법주사 대웅보전도 천왕문, 팔상전을 잇는 중요한 법주사의 주축 선상의 정점에 위치하여 가람 내의 주불전으로서의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완주 송광사 대웅전은 본래 중층의 건물이었으나 현재는 단층으로 개조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전통건축 건물입면 처리에 있어 창호는 채광, 환기 등의 기능 외에도 의장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소사 대웅보전, 논산쌍계사 대웅전 등 전체의 32.5%에 해당되는 14개소의 불전에서 화려하고 장엄한 느낌의 꽃살창 혹은 꽃살창과 소슬창을 조합하여 채택하였다. 내소사 대웅보전의 꽃살창(그림15)은 16세기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꽃살창으로 다채로운 문양의 다양한 변화¹³⁾와 함께 뛰어난 조각 솜씨가 단연 돋보이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3번

12) 배병선, 1993, p.257

13) 어칸 분합문은 각창마다 다른 문양을, 동협칸 2분합문은 창마다 다른 문양으로 서협칸은 같은 문양이다.



〈그림 15〉 내소사 대웅보전 여간 꽃살창

째, 6번째의 두 창호에는 활짝 핀 꽃들이 중앙의 꽃봉오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동일한 꽃문양이 반복되는 다른 꽃살창과는 구분된다. 이는 불성을 깨우치는 단계를 꽃봉우리와 활짝 핀 꽃으로 구분¹⁴⁾하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29개소 중 교살창 14개소, 정자살 7개소, 세살창 4개소, 기타 4개소 등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형태의 창살을 채택하여 창호에서는 특별한 의장상의 기법을 발견할 수 없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기타 4개소 중 하동 쌍계사 대웅전과 같이 전면창호에서 상부는 고창, 창호 상부에는 교살, 중단에는 팔각형의 불발기창, 하단에는 궁판을 두는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조합하여 창호를 구성하여 변화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대웅전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이 4개소, 우물천장이 8개소, 층급천장이 11개소로 분석된다. 나머지 15개소는 여러 가지 천장형식이 조

14) 허균, 2011, P.137-138

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연등천장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수덕사 대웅전(그림16) 등 비교적 이른 시기의 불전이 이에 속한다.

우물천장은 장귀틀과 동귀틀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형성하고 반자 판을 막아 천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등천장보다는 장식적이다. 우물천장은 그 방식에 따라 봉정사 대웅전(그림18)과 같이 전체 천장면을 높이 차이가 없이 평우물로 하는 방법과 높이 차이를 두는 층급천장의 2가지으로 구분된다. 층급천장은 화엄사 대웅전(그림19)과 같이 건물은 단층이나 평면 중앙 부위를 주변과 구분하여 단을 높여 층급을 만드는 방법과 마곡사 대웅보전과 같은 중층 건물의 경우 자연히 천장면의 높이 차이 때문에 상하층의 우물천장으로 구성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한편 앞의 2가지 방식이 아닌 우물천장,사천장,평천장 등 여러형식의 천장을 적절히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천장을 마감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내소사 대웅보전은 중도리를 경계로 안쪽은 우물천장, 바깥쪽으로는 빗천장을 설치하였다. 홍성 고산사 대웅전(그림17)은 연등천장과 층급천장을 조합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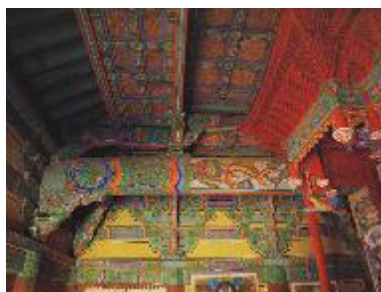
대비사 대웅전은 어칸부위는 높게 퇴칸부분은 낮게 층급천장을 구사하였으며 여기에 어칸부위 중도리와 내목도리 사이에는 우물천장과 곡면천장을,불단 후면에는 평천장을 두어 마감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을 천장마감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고창 선운사 대웅전(그림21)을 들 수 있다. 여기서서는 전후면 중도리 사이 어칸에는 우물천장, 협칸과 퇴칸에는 평천장으로 천장을 마감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중도리와 내목도리 사이는 사천장으로 마감하고 있다.

연등천장



〈그림 16〉 수덕사 대웅전

연등천장 +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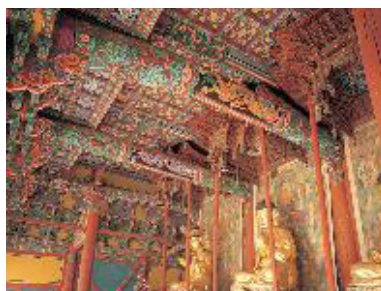
〈그림 17〉 고산사 대웅전

우물천장



〈그림 18〉 봉정사 대웅전

층급천장



〈그림 19〉 화엄사 대웅전

우물천장 + 사천장



〈그림 20〉 내소사 대웅전

우물천장 + 평천장 + 사천장



〈그림 21〉 고창선운사 대웅전

단집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단집이 생략된 불전이 9개소에 불과하며 단집이 설치된 불전은 33개소로 전체의 78.5%에 달하여 주불전으로서 대웅전에는 보개로 불상 상부를 장엄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단집을 생략한 경우는 수덕사 대웅전과 같이 연등천장 형식으로 노출되는 가구부재 등이 섬세한 치목으로 불전 내 장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곡사 대웅보전도 중층 건물의 천장이 의장적으로 화려하여 단집의 장엄 역할을 대신한 유사한 사례로 판단된다.

단집 중에는 운궁형이 형이 14개소, 보개형이 19개소이다. 단집의 간략화¹⁵⁾한 형태인 운궁형은 다시 내소사 대웅보전의 ‘ㄷ’자형 좁은 판형 운궁(그림22), 법주사 대웅보전의 넓은 판형 운궁(그림23)이 있다. 판형 운궁 중에서도 환성사 대웅전 운궁(그림24)같이 불상 좌우로 꺾인 형태로 주불상과 협시의 위계를 구분하는 형태도 있다. 또한 남해용문사 대웅보전(그림25)과 같이 허주, 연봉, 용조각 등으로 장식되었으나 상부 박공면과 공포가 생략된 것으로 판형 운궁과 보개의 중간 단계(그림24)로 구분된다.

보개형 단집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과 같이 중층으로 구성된 것이 3개소이며 나머지 16개소는 모두 단층이다. 보개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천장면 안쪽으로 설치하는 함입형이 2개소이며 나머지 15개소는 불상 상부에 설치하고 있다. 보개 평면은 봉정사 대웅전(그림26)과 같은 함입형은 장방형, 관룡사 대웅전(그림28) 십자형, 범어사 대웅전(그림29)은 중십자형으로 보다 화려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15) 배병선, 1986, p.134



〈그림 22〉 내소사 대웅보전



〈그림 23〉 범주사 대웅보전



〈그림 24〉 환성사 대웅전



〈그림 25〉 남해 용문사 대웅전



〈그림 26〉 봉정사 대웅전



〈그림 27〉 논산 쌍계사 대웅전



〈그림 28〉 관룡사 대웅전



〈그림 29〉 범어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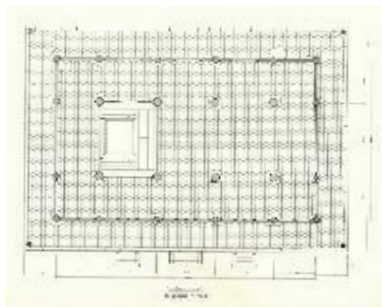
2) 극락전(極樂殿)

아미타부처님은 극락정토에서 머물면서 중생을 극락으로 이끈다는 부처님이다. 아미타부처님을 봉안하는 불전은 극락전 혹은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한 점에서 유래하여 무량수전(無量壽殿)이라고도 한다.

극락전 내에는 봉정사 극락전과 같이 아미타불을 단독으로 봉안하는 경우와 아미타삼존을 봉안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아미타삼존을 봉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좌우협시는 무량사 극락전과 같이 고해의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대세지, 관음보살을 봉안하거나 혹은 무위사극락전과 같이 지장, 관음보살을 봉안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극락전의 불상 배치와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불상이 평면의 서편 측면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배치(그림30, 31)되어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 불전의 경우 건물 평면의 정면 방향으로 불상을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아미타부처님(그림)이 서방 극락정토¹⁶⁾에 계신다는 점에 맞추어 평면의 측면 방향인 동향으로 봉안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건물 기본 형태는 우리 고유 형식을 따르되 불상 봉안을 교리에 맞추어 구성함으로써 중심적 방향성을 가지게 하는 사례의 하나로 해석된다.

16) 불전 내 불상이 측벽에 봉안하는 경우로는 불갑사 대웅전, 마곡사 대적광전 등이 있으나 이들 불상은 아미타불이 아니기 때문에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없다.



〈그림 30〉 부석사무량수전평면도



〈그림 31〉 부석사무량수전아미타불상

〈표 2〉 대웅전 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창호	공포	불상	천장	닫집	비고
수덕사대웅전	1308	3×4	맞배	교살	주심포	석가 아미타 약사 문수 보현	연등	-	
봉정사대웅전	1435	3×3	팔작	정자	다포	석가 문수 보현	우물	함입	전면 마루
개심사대웅전	1484	3×3	맞배	교살	다포	석가 문수 보현	연등	운궁	
장곡사 상대웅전	18c	3×2	맞배	정자	다포	비로자나 약사	연등	-	
장곡사 하대웅전	16c- 17c초	3×2	맞배	정자	다포	약사	우물	함입	
관룡사대웅전	1617	3×3	팔작	빗살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층급	십자 보개	
선운사대웅전	1613	5×3	맞배	세살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우물 사천장	보개 2층	전면 마루
개암사대웅전	1636 중건	3×3	팔작	소슬 꽃살	다포	석가 문수 보현	층급	십자 보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창호	공포	불상	천장	단집	비고
화엄사대웅전	1636	5×3	팔작	교살 정자	다포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	층급	중심자 보개	
율곡사대웅전	1679 중수	3×2	팔작	소슬 꽃살	다포	석가 문수 보현	연등	십자 보개	
여수 흥국사대웅전	1624	3×3	팔작	숫을살	다포	석가 제화갈라 미륵보살	평우물 사우물	십자 보개	
홍성 고산사대웅전	조선초	3×3	팔작	정자	주심포	아미타불	연등 우물	중심자 보개	
논산 쌍계사대웅전	1739 중수	5×3	팔작	꽃살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사천장 우물	중심자 보개	2층 보개 3개
범어사대웅전	1633 중수	3×3	맞배	교살	다포	석가 미륵보살 제화갈라	평우물 사우물	중심자 보개	
양산 통도사대웅전	1645	3×5	팔작	꽃살 교살	다포	-	층급 평천장	-	
하동 쌍계사대웅전	1651 중수	3×3	팔작	정자 교살	다포	석가 아미타불 약사불 4보살	우물 평천장	중심자 보개	
환성사대웅전	1635 중창	5×4	팔작	정자	다포	석가 문수 보현	층급	운궁 3개	
안심사대웅전	1626	3×2	맞배	꽃살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층급	십자 보개	
직지사대웅전	1735	5×3	팔작	정자 교살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평우물 사우물 사천장	운궁 3개	
선운사 창당암대웅전	1724	3×3	맞배	교살	다포	석가 문수 보현	층급	-	배면 주심포
정혜사대웅전	1613	3×2	팔작	교살	다포	석가 문수 보현	우물 사천장	운궁	
불갑사대웅전	1764 중건	3×3	팔작	꽃살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우물 평천장	중심자 보개	불단 동향
대비사대웅전	17c	3×3	맞배	교살	다포	석가	우물 곡천장	운궁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창호	공포	불상	천장	단집	비고
미황사대웅전	1754	3×3	팔작	소슬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평우물 사우물	십자 보개	
원주 송광사대웅전	1623	5×3	팔작	정자 상부 벽화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우물 사천장	운궁	2층 개조
능가사대웅전	18중	5×3	팔작	교살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좌우협시	충급	* 운궁	
불회사대웅전	1799	3×3	팔작	교살	다포	석가 보현 문수	우물 사천장	-	
선암사대웅전	1824	3×3	팔작	교살	다포	석가모니	충급	운궁	합입 천장
동화사대웅전	18c	3×3	팔작	꽃살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충급	* 운궁	
불국사대웅전	1765 중창	5×4	팔작	꽃살 교살	다포	석가 문수 보현	충급	-	중앙부 합입 천장
기장 장안사대웅전	1658	3×3	팔작	꽃살 교살 정자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우물 사천장	-	
의성 대곡사대웅전	1687	3×2	팔작	세살	다포	석가 관세음 대세지	우물	보개	
남해 용문사대웅전	1666	3×3	팔작	교살	다포	석가삼 문수 보현	우물	* 운궁	거북, 개, 물고기, 해초 문양
고창 문수사대웅전	1653 건립 1835 개수	3×3	맞배	교살	다포	석가 대세지 관세음	우물	-	
내소사 대웅보전	1633 중수	3×3	팔작	꽃살	다포	석가 대세지 관세음	우물 사천장	운궁	
마곡사	1651 중수	3×3	팔작	정자 교살	다포	석가	우물 곡천장		
마곡사 대웅보전	1651 중수	3×3	팔작	정자 교살	다포	석가 아미타불 약사불	충급	-	중층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창호	공포	불상	천장	단집	비고
운문사 대웅보전	1718 보수	3×3	팔작	꽃살	다포	비로자나	우물	-	
법주사 대웅보전	1624	7×4	팔작	교살	다포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	우물 사천장	운궁	중층
불영사 대웅보전	1735	3×3	팔작	교살	다포	석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우물	운궁	
화성옹주사 대웅보전	1790	3×3	팔작	꽃살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우물	보개	
남양주흥국사 대웅보전	1878	3×3	팔작	세살	다포	석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우물 사천장	보개 2층	
해남대흥사 대웅보전	조선후기	5×3	팔작	교살	다포	석가 아미타 약사	층급 사천장	운궁	
보광사 대웅보전	19c 후반	3×3	팔작	세살	다포	석가 문수 보현	우물 사천장	보개	

극락전 규모는 정면 3칸이 7개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정면 5칸의 비교적 규모가 큰 불전이 2개소이다. 특이한 사례는 봉암사 극락전으로 정면1칸 규모의 정방형 평면 사방으로 기둥을 돌려 채양칸을 만든 것이다. 지붕은 모임지붕으로 상부에 돌로 만든 상륜부를 올려 마치 목조탑과¹⁷⁾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배면벽에 붙여 불단을 설치하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극락전 중 바닥 마감재료에는 무위사 극락전과 같이 전돌로 마감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전돌은 려말선초 비교적 시기가 이른 때 사용하던 마감재료로 불전 건물 내 불상 앞에서 예불하는 행위에는 적합

15)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1999, p.130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과거 불전 내 예불하지 않고 행례를 하던 시기의 바닥마감재료의 흔적¹⁸⁾으로 해석된다.

극락전 중 무량사 극락전은 유일하게 중층이다. 내부에는 5.4m 높이의 아미타불과 4.8m의 대세지, 관음보살 등 장육상을 봉안하고 있으므로 큰 볼륨의 내부공간의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중층의 불전을 건립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물 내부는 여느 중층 불전과 같이 상하층을 터서 대규모 불상에 어울리는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무량사 극락전이 중층인 점은 우리나라 가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대웅전 못지 않게 가람의 성격에 따라 극락전도 중요 불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사례로 해석된다.

건축형식은 주심포맞배집이 2동, 주심포 팔작집이 부석사 무량수전 1동이다. 이들은 모두 려말 선초의 시기적 형식을 대변해 주고 있다. 나머지 6동은 모두 다포집이며 그중에서 2동은 다포맞배집으로 간략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면 창호는 살창이 1동이며 정자살 1동, 세살창 1동, 교살이 3동 등 일반 형태의 창호가 5동이다. 무위사 극락전은 소슬창,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은 퇴간은 모두 정자살창이나 어칸에는 정자살과 소슬창을 2짝씩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대웅전에 비하여는 창호의 장식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극락전 천장은 연등천장이 3동, 우물천장이 3동, 나머지 3동은 층급천장으로 구성하였다. 연등천장은 모두 시기가 려말선초의 주심포 건물에서 나타나며 나머지 6동은 모두 우물천장 혹은 층급천장을 채택하여 평면 규모에 관계없이 중요불전으로서 다포식 건물 형식에

18) 이정국, 1997, p.196-197

맞추어 최고의 장엄을 베푸는 것으로 해석된다. 봉암사 극락전은 천장 중앙부위에 함입형으로 보개와 같이 구성하고 있다.

무량사 극락전 등 2동을 제외한 나머지 7동은 모두 단집을 채용하고 있다. 함입형은 2개소, 보개형 단집은 4개소이며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이 유일하게 운궁형이다. 무위사 극락보전은 천정 내부에 오목 들어가는 함입형으로 단집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봉암사 극락전의 경우 함입형 보개와 현재 불단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당초 극락전이 아닌 목조탑과였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봉정사 극락전 단집(그림32)은 일자형 평면이며 부석사 무량수전은 중십자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2건물의 단집은 기둥 상부의 화려한 공포, 지붕 박공면을 보여주며, 기둥사이에는 화초문을 투각한 것으로 장식하고 기둥 하부는 연봉으로 장식하고 있다. 단집 천장판에는 용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극락세계¹⁹⁾임을 나타낸다. 한편 2건물의 보개는 모두 아래로 기둥이 내려온 형식으로 단집이 건물의 축약임을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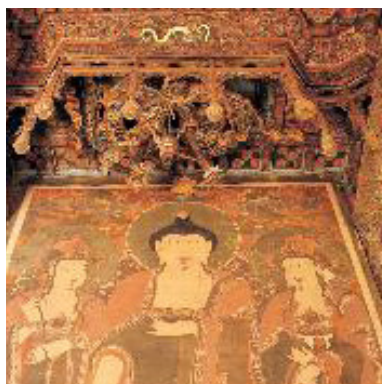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의 단집(그림33)은 유일하게 운궁형으로 간략하나 여기서는 일직선의 간략한 형태에서 벗어나 중앙 부위의 아미타부처님 상단에서 좌우협시로 나아가면서 운궁면을 꺾어²⁰⁾ 불과 보살의 위계를 구분짓고 있다.

1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1992, p.146-148

20) 경상북도 영천군, 은해사백홍암실측조사보고서, 1985, p.49



〈그림 32〉 봉정사 극락전 담집



〈그림 33〉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담집

〈표 3〉 극락전 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창호	공포	불상	천장	담집	비고
무위사 극락보전	1430	3×3	맞배	소슬	주심포	아미타불 지장 관음	연등	함입	전돌
봉정사극락전	1363 중수	3×4	맞배	살창	주심포	아미타불	연등	일자형 보개	전돌
부석사 무량수전	1376 중건	5×3	팔작	정자	주심포	아미타불	연등	중심자 보개	전돌 불상동향
원주 화암사극락전	1624	3×3	맞배	교살	다포	아미타 대세지 관음	우물	중심자 보개	하양
무량사극락전	1633	5×4	팔작	교살	다포	아미타 대세지 관음	층급	-	중층
은해사 백홍암극락전	1643	3×3	팔작	정자 소슬	다포	아미타 대세지 관음	층급	운궁	
대적사극락전	18c	3×2	맞배	교살	다포	아미타 대세지 관음	층급	일자 *운궁	
봉암사극락전	1674 중창	1×1	사모	세살	주심포 다포	아미타불	우물 함입	-	채양간
청송 보광사극락전	1615	3×3	맞배	세살 불발기	다포	아미타 대세지 관세음	우물	-	

3) 대적광전(大寂光殿)

대적광전은 크고 고요한 진리의 빛이 가득한 세계라는 의미를 담은 명칭이다. 진리의 세계인 연화장(蓮華藏)세계의 주불은 비로자나불로 이를 봉안한 불전이 곧 대적광전이다. <화엄경>에 근거하고 있다 하여 화엄전(華嚴殿) 혹은 비로자나불을 모셨다고 하여 비로전(毘盧殿)이라 불리기도 한다. 한편 대광명전(大光明殿), 보광명전(普光明殿), 대적전(大寂殿), 대광전(大光殿)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적광전에는 귀신사 대적광전과 같이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 석가불의 삼신불²¹⁾을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림사 대적광전과 같이 선종의 삼신설에 따라 아미타불 대신 노사나불을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수타사 대웅전과 같이 비로자나불을 단독으로 봉안하기도 한다.

대적광전 규모는 정면3칸이 6동, 정면 5칸이 6동으로 다른 불전에 비하여 비교적 큰 규모인 정면5칸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정면5칸인 대적광전의 대부분이 삼신불을 봉안하기 위한 불단의 크기 때문에 넓은 실내공간이 필요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축형식은 다포팔작이 6동, 다포맞배집이 5동이며 나머지 1동은 대흥사 대광명전으로 맞배집이면서 익공, 다포 요소가 절충된 조선 후기적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면 5칸의 비교적 큰 규모인 기림사대적광전(그림34, 35) 등 3동이 다포맞배집인 점이다. 5칸 규모의 집에서 팔작집보다 덜 화려한 맞배지붕의 비율

21) 정병삼, 2003, 127



〈그림 34〉 기림사 대적광전 전경



〈그림 35〉 기림사 대적광전 삼존불

이 높은 점은 전란 이후 건립과정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절충적 형태인 다포맞배집이 다수 건립²²⁾된 점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창호는 꽃살창이 3동, 소슬창이 2동이며 나머지는 교살창, 세살창, 정자살창 등 일반 형태이다. 꽃살창과 소슬창 등의 비중이 41.6%에 달하는 점은 주불전으로서 화려한 장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천장 마감은 우물 1동, 층급 5동으로 주요불전의 위계를 갖춘 마감방식을 채택하였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조합한 조합천장 방식이다. 예를 들면 기림사대적광전(그림36)은 우물천장과 사천장을, 신흥사 대광전(그림37)은 평우물과 사우물을 사용하였으며 각연사 비로전은 평천장과 사천장을 사용하고 있는 등 다양하게 해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천장의 사용이 많은 점이다. 넓은 천장면적을 모두 우물천장으로 해결하기에는 자재와 공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귀틀을 사용

22) 배병선, 1993, p.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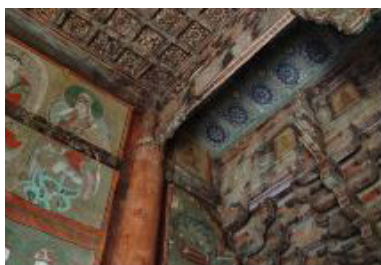
〈표 4〉 대적광전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공포	창호	불상	천장	담집	비고
귀신사 대적광전	17c	5×3	맞배	다포	교살	비로자나 아미타 약사	우물 사천장	-	2층 개조
기림사 대적광전	1692 중수	5×3	맞배	다포	꽃살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	우물 사천장	-	
해인사 대적광전	1817	5×4	팔작	다포	정자	비로자나 문수 보현	우물 사천장	3개소 *심자형 운궁	
갑사 대적전	1826	3×3	팔작	다포	세살	아미타 관음 대세지	층급	-	
수타사 대적광전	1636	3×3	팔작	다포	세살 교살	비로자나	우물	중심자 보개	
마곡사 대광보전	1813	5×3	팔작	다포	꽃살	비로자나	층급	중심자 보개	불단 측면
통도사 대광명전	1758	5×3	팔작	다포	소슬 꽃살	비로자나	층급	*운궁	
대흥사 대광명전	1841	3×3	맞배	익공	소슬 교살	비로자나	우물 평천장 사천장	-	측면 방화벽
신흥사 대광전	1657	3×3	맞배	다포	소슬	석가 보현 문수	평우물 사우물	-	
신안사 대광전	17c	5×3	맞배	다포	정자	비로자나 석가 노사나	층급	보개	후불벽 불단
청주 안심사 비로전	18C	3×2	맞배	다포	정자	석가모니 보현 문수	층급	-	19c 개조
각연사 비로전	17c	3×3	팔작	다포	교살	석조 비로자나	평천장 사천장	-	전돌

하지 않고 넓은 반자를 사용하는 사천장을 도입²³⁾하는 방법이다. 다만 신흥사 대웅전은 층급 대신 사천장에도 우물을 사용한 점이 차이가 있다.



〈그림 36〉기림사대적광전



〈그림 37〉양산신흥사대광전

4) 미륵전(彌勒殿)

도솔천의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 7천만년이 지나면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성불하시는 미래의 부처님으로 이를 봉안한 전각이 미륵전 혹은 용화전으로 불리운다.

삼국시대 미륵삼존을 봉안한 대표적인 가람은 익산 미륵사지이다. 백제 무왕은 용화산 밑의 연못 가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한 것을 계기로 미륵사라는 사찰을 창건하였다. 미륵사는 〈미륵삼부경〉을 토대로 삼원(三院)을 병렬²⁴⁾한 독특한 형태(그림38)의 가람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가람 형식은 동양삼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미륵신앙이 구체화되어 가람의 배치에 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23) 천장은 참배자로 하여금 장엄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나 사천장의 사용은 이런 면에서 다소 위계가 떨어지는 해결방식이다.

24) 김삼용, 1984, P.144



〈그림 38〉 미륵사지복원도(장경호 백제사찰건축에서 전재)

한편 진표율사는 미륵보살로부터 2개의 간자(簡子)와 수기를 받은 후에 미륵도장을 창건하였다. 금산사 미륵전에는 높이 11.92m의 미륵불, 좌우 협시 8.79m 등 3구의 불상(그림39)을 모셨다. 거대한 장육상의 조성은 불전을 3층의 중층건물을 건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부는 각층을 구분하는 마루없이 상하층을 개방한 통층형 건물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 경우 천장은 전면부의 빗천장과 나머지 우물천장을 조합한 천장 형태를 가지게 된다. 미륵삼존의 상부에는 단집을 생략하고 층급을 이룬 화려한 천장 마감을 불상 위 장엄

으로 대신하는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금산사 미륵전의 외부에는 1층에는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에는 용화지회(龍華之會), 3층에는 미륵전(彌勒殿) 현판을 걸어 이곳이 미륵 도장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9〉 금산사 미륵삼존

진표율사가 창건한 또 하나의 미륵도장은 법주사이다.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후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법주사도>에는 지금 청동미륵불상이 놓여 있는 위치에 용화보전이라는 이름의 2층 목조건물²⁵⁾이 그려져 있다. 용화보전은 미륵불을 봉안하는 미륵전의 다른 이름으로 여기에도 금산사와 같이 장육의 미륵불상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화보전은 대원군이 경복궁 복원공사를 위하여 당백전을 만들기 위하여 미륵장육상을 파괴하면서 헐려 없어지게 되었다.

미륵전은 중층건물만이 아니라 소규모 단층 불전으로도 건립되었다. 통도사 용화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소규모 불전으로 내부에는 미륵불상 1구만을 봉안하고 있다. 건축형식은 다포맞배로 통도사의 많은 수의 불전 건물 중 대웅전과 금강계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계가 떨어지는 건물임을 건축구조에서 볼 수 있다.

〈표 5〉 미륵전분석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창호	공포	불상	천장	단집	비고
금산사미륵전	1635	5×4	팔작	교살	다포	미륵 법화림 보살 대묘상 보살	우물 사천장	-	3층
통도사용화전	1725 보수	3×3	맞배	세살	다포	미륵불	우물	-	

25)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p.61

5) 약사전(藥師殿)

약사여래는 중생을 질병으로부터 구제한다는 부처로 아미타여래가 사후 신앙을 기본으로 한다면 약사여래는 철저히 현세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룡사 약사전과 같이 대부분의 약사전에서는 약사불을 단독으로 봉안하고 있으며 <불설약사여래본원경>에 의한 월광보살, 일광보살을 약사불과 함께 봉안하고 있는 경우는 기림사약사전 정도이다.

약사전은 정면 1칸이 2동이며 나머지도 정면 3칸으로 규모가 작다. 이는 약사여래 신앙 자체가 그 성립년대가 늦을 뿐 아니라 불교사상의 교리면에서도 약사여래는 중요한 위치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없다²⁶⁾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측면칸도 송광사 약사전과 같이 1칸이거나 혹은 3칸으로 규모가 작아 불단도 자연히 후벽에 붙여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그림40, 41)하고 있다.

건축형식은 맞배집이 전체 10동 중 7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소규모 불전임을 알 수 있다. 창호는 다른 중요 불전과 같은 꽃살창은 찾아 볼 수 없고 교살 등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약사전 천장은 우물천장 4동, 연등천장 2동이다. 나머지는 우물천장과 사천장의 조합형식으로 소규모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불전으로서 최소한의 장엄은 갖추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집은 없는 경우가 50%이며 나머지는 보개가 3동, 운궁이 2개이다.

26) 홍윤식, 1988, p.107



〈그림 40〉 송광사 약사전 전경



〈그림 41〉 송광사 약사전 내부

〈표 6〉 약사전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창호	공포	불상	천장	담집	비고
관룡사 약사전	조선 전기	1x1	맞배	정자	주심포	약사	연등	-	불단 후벽
전등사 약사전	1621	3x2	팔작	교살	다포	약사	우물 사천장	-	불단 후벽
송광사 약사전	17c	1x1	팔작	세살	다포	약사	연등	-	불단 후벽
선원사 약사전	1754	3x2	맞배	세살	익공	약사	우물	보개	불단 후벽
통도사 약사전	18c후	3x1	맞배	정자	다포	약사	우물	-	불단 후벽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1867	3x2	팔작	정자	다포	약사	우물 사천장	종십자 보개	불단 후벽
기림사 약사전	1654	3x1	맞배	교살	다포	약사 일광보살 월광보살	우물	운궁	불단 후벽

2. 중단(中壇) 전각

1) 영산전(靈山殿)

영산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광경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의 준말이다. 영산전에는 석가의 십대제자 등을 비롯한 권속을 봉안하게 된다. 부처의 일대기를 8개로 구분한 그림인 팔상도를 봉안하기 때문에 팔상전(八相殿)으로 부르기도 한다.

영산전(그림42)의 규모는 정면 3칸이 6개로 6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5칸 3개, 7칸이 1개소이다. 주불전이 아님에도 5칸, 7칸 규모의 전각이 있는 것은 특이하다. 이것은 마곡사 영산전같이 천불을 봉안하거나,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같이 5백나한을 봉안하는 등 봉안 조상의 수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평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영산전의 경우 평면 내 불단의 형태도 주불전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즉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은 중앙의 불단 좌우로 ‘ㄷ’자형 불단을 마련하여 많은 수의 나한상을 봉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법주사 팔상전(그림43)은 목조탑과형 건물로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ㄱ’자형불단을 구성하고 있다. 선암사 영산전(그림44)은 중앙의 석가삼존을 중심으로 좌우로 ‘ㄷ’자형 불단을 마련 16나한을 봉안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평면 형태 중 특이한 것은 통도사 영산전으로 여기서는 측면²⁷⁾에 붙여서 불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해남 대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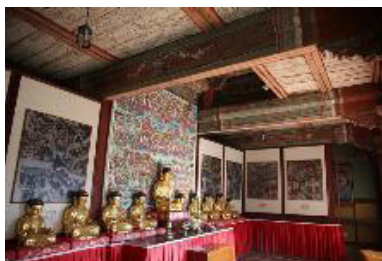
27) 통도사 영산전은 불단의 반대편인 서쪽벽에는 건보탑품,북측벽에는 팔상도가 그려져 있다. 문화재청, 2014, P.165-166



〈그림 42〉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그림 43〉범주사 팔상전



〈그림 44〉선암사 영산전



〈그림 45〉마곡사 영산전

사 천불전은 불전 후벽과 측면 벽에 연접하여 일자형 불단을 마련하여 천불을 봉안하는 형태를 취한다. 마곡사 영산전 불단(그림45)은 중수과정에서 원래 형태인 일자형에서 중앙부분이 볼록²⁸⁾한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창호는 꽃살창이 1개소에 불과하여 주불전과는 위계를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장은 우물천장3개,층급이3개로 전체의 60%이며 나머지는 연등천장이 1개, 그 외에는 연등, 우물, 사천장, 평천장 등이 조합된 모습이다. 단집은 생략한 경우가 6개소이며, 그 외에는 운

28) 공주시, 2013, p.214-215

궁9이 2개소, 보개가 2개이다. 남양주 홍국사 영산전은 중앙부분은 보개, 좌우는 운궁으로 장엄하여 석가삼존과 16나한의 위계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표 7〉 영산전 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공포	창호	불상	천장	담집	비고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1375	7X3	맞배	주심포	살창	5백나한	연등	-	ㄷ자 불단
송광사 영산전	1736 중수	3X2	팔작	다포	교살	석가	층급	운궁	ㄷ자 불단
마곡사 영산전	조선중	5X3	맞배	주심포	교살 정자	과거칠불 현겁천불	층급	-	일자 불단
석남사 영산전	조선초 중기	3X2	팔작	다포	정자	석가삼존 16나한	평우물	일자형 보개	ㄷ자 불단
통도사 영산전	1714	3X3	맞배	다포	정자	석가 (축벽)	층급	-	견보 탑품 벽화
남양주 홍국사 영산전	조선 후기	3X2	팔작	다포	세살	석가삼존 16나한	우물 사천장	2층 보개 *운궁	ㄷ자 불단
법주사 팔상전	1626 중건	5X5	모임	주심포 다포	정자	열반상 삼존불	연등 우물	-	
선암사 팔상전	1824 중건	5X3	맞배	익공	교살	아미타	우물 평천장	운궁	ㄷ자 불단
영은사 팔상전	1641	3X2	맞배	익공	세살	-	우물	-	ㄷ자 불단
쌍계사 팔상전	1806 중수	3X3	팔작	다포	교살	석가불	층급	보개	

2) 나한전(羅漢殿)

석가불의 십대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중 가장 뛰어난 이를 일컫어 십육나한이라 한다. 나한전은 대부분 십육나한을 모시나 경우에 따라

이를 확대하여 오백나한을 봉안하기도 한다. 이들은 세상의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하여 응공(應供)이라 말하며 응진전(應眞殿)이란 명칭은 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나한전 7동 중 정면 3칸 규모가 6동으로 소규모 전각이며 기림사 응진전만이 유일하게 5칸 규모이다. 기림사 응진전은 오백나한을 봉안하기 위하여 건물 규모를 크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나한전 불단은 성혈사 나한전의 일자형 불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ㄷ’자형 불단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석가삼존 외에도 많은 수의 나한을 봉안하기 위한 평면상의 조치로 해석된다.

건축형식은 부불전의 위계에 맞추어 화려한 팔작집보다는 단정한 맞배집을 선호하여 송광사 나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6동이 맞배집이다. 다포맞배집이 3동, 익공계맞배집이 2동, 주심포 맞배집이 1동, 익공계팔작집이 1동으로 분석되었다.

창호는 꽃살창이 1동, 세살창 3동, 교살창 3동으로 부불전 성격에 맞도록 일반 창호를 택하고 있다. 다만 성혈사 나한전(그림46) 같은



〈그림 46〉 성혈사나한전 꽃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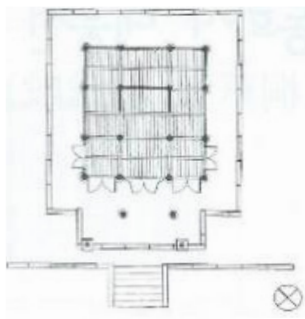
소규모 전각에 입면 장엄상 최고의 위계를 차지하는 것으로 꽃살창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어칸 창호에는 물고기, 개구리, 학 등의 생물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중기 이후 서민의식을 포용하면서 사찰건물에서 민화적 요소²⁹⁾를 반영한 사례로 해석된다. 전면 창호 중 특이한 사례는 송광사 나한전 전면 퇴칸에는 조그만 교살창을 내어 열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장 마감은 우물천장이 3동, 사천장이 1동, 나머지는 우물,평천장, 사천장 등을 조합한 것이 3동이다. 단집을 생략한 것이 6동이며 쌍계사 나한전 1동에만 일자형의 간략한 운궁이 설치되어 있다.

〈표 8〉 나한전 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창호	공포	불상	천장	단집	비고
성혈사 나한전	1634 중건	3X1	맞배	꽃살	다포	비로자나 나한	우물	-	일자형 불단
쌍계사 나한전	17중	3X2	맞배	세살	익공	석가 나한	우물	운궁	ㄷ 불단
송광사 나한전	1656	3X3	팔작	교살	익공	석가삼존 16나한 오백나한	평천장 사천장	-	ㄷ 불단
불영사 응진전	1716 중수	3X2	맞배	세살 교살	다포	석가삼존 16나한	우물 사천장	-	ㄷ 불단
장안사 응진전	1899 중건	3X2	맞배	세살	익공	석가삼존 16나한	우물	-	ㄷ 불단
통도사 응진전	1677	3X3	맞배	교살	주심포	석가삼존 16나한	우물 평천장 사천장	-	ㄷ 불단
기림사 응진전	조선후	5X2	맞배	교살	다포	석가삼존 오백나한	사천장	-	ㄷ 불단

29) 문화재청, 2007, p.96



〈그림 47〉 선암사 원통전 평면도



〈그림 48〉 선암사 원통전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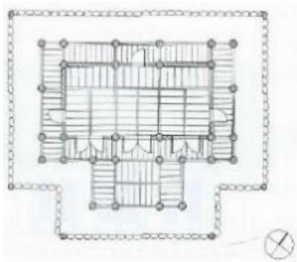
3) 관음전(觀音殿)

관세음보살은 세상 모든 음성을 관하여 중생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분이다. 이를 봉안하는 전각을 관음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신앙이 유행하여 많은 전각이 건립되었다. 한편 관세음보살은 모든 곳에 두루 대처하여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기 때문에 원통전(圓通殿)이라 칭하기도 한다.

원통전은 규모는 정면 3칸 이하의 소규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 불전의 방장형 평면과 다른 몇가지 특이한 모습의 평면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정방형에 가까운 법주사 원통보전과 정자형의 선암사 원통전과 홍국사 원통전이다. 법주사 원통보전은 정면이 측면보다 0.5m 정도 긴³⁰⁾ 형태로 목조탑과 평면과 닮았으며 내부에 4개의 고주를 두고 있는 면에서는 금산사 대장전과 유사하다.

30) 보은군, 문화재청, 2010, p.132



〈그림 49〉 홍국사 원통전 평면도



〈그림 50〉 홍국사 원통전 전경

두번째는 선암사 원통전(그림47, 48)과 홍국사 원통전(그림49, 50)은 다른 불전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정자형 평면³¹⁾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연히 지붕은 팔작지붕에 다시 합각면을 덧댄 정자형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두건물의 차이점은 홍국사 원통전이 사방으로 퇴칸을 가진 형태이고 선암사 원통전은 전면에만 퇴칸을 지닌 점이 다르다. 예전 화순 쌍봉사에는 유사한 형식의 평면을 지닌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홍국사 원통전의 사방 퇴칸을 가진 건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조선후기 염불결사 운동의 일환으로 예불을 행할 때 실내에서 행하지 않고 탑돌이와 같이 주변을 돌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특이한 모습의 평면³²⁾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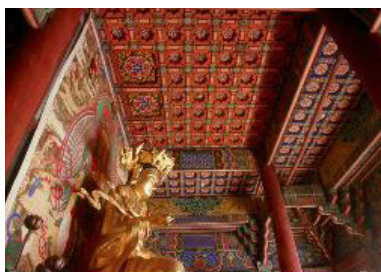
공포는 주심포, 익공, 다포 등이 혼용되어 가람내의 위계와 시대 등에 따라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호는 선암사 원통전의 꽃살 창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살, 교살, 정자살 등 일반적인 형태를 채택

31) 정자형 평면은 룡원 정자각 등 특수한 용도의 건물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32) 천득염, 전봉희, 2002, p.108



〈그림 51〉 통도사 원통전 천장



〈그림 52〉 법주사 대웅보전 천장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단집을 생략하는 대신 통도사 관음전(그림51) 같이 천장의 우물천장을 층단을 달리하거나 법주사 원통보전(그림52)같이 반자의 크기를 조정하여 단집의 장엄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소규모 불전에서 공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집을 구성하기 보다 천장 마감을 변용하여 단집의 장엄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관음전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공포	창호	불상	천장	단집	비고
통도사 관음전	1725	3X3	팔작	익공	교살	관음	층급	-	불단 후불벽
개목사 원통전	1457	3X2	맞배	주심포	정자	관음	연등	운궁	전면 퇴칸
파계사 원통전	1606	3X3	맞배	다포	세살	관음	우물	보개	
선암사 원통전	1824 중수	3X3	정자형	익공	꽃살 소슬 세살	관음	우물	-	퇴칸
법주사 원통보전	1624	3X3	사모	주심포	정자	관음 동자	층급	-	
흥국사 원통전	1624	5X3	정자형	절충	교살	관음	우물 사우물	-	퇴칸

4) 문수전(文殊殿)

문수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할 지혜를 주는 보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인 관음신앙은 성행하고 반면에 문수신앙은 약화되어 문수보살을 단독으로 봉안하는 전각은 드문 편이다.

문수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소규모 건물(그림53, 54)로 건물내부에는 석조 문수보살상이 하부가 땅에 묻힌 상태로 봉안되어 있다. 승상(僧像)의 모습인 문수보살을 봉안한 곳은 고창 문수사 문수전이 유일하다. 특이한 점은 문수상이 건물 전면을 바라보지 않고 동향으로 건물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점이다. 문수전은 익공계 맞배지붕, 창호는 교살창으로 보살단의 불전의 위계를 반영한 소략한 모습이며 단집도 생략하고 있다.

〈표 10〉 문수전 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창호	공포	불상	천장	단집	비고
문수사 문수전	1764	3×1	맞배	교살	익공	석조 문수	우물	-	동향 동측면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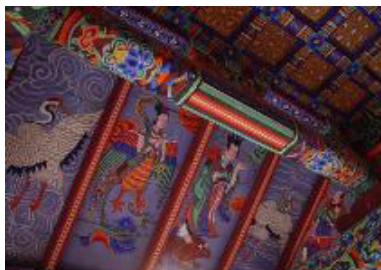
〈그림 53〉 문수사 문수전 전경



〈그림 54〉 문수사 문수전 문수보살상



〈그림 55〉 쌍계사 명부전 평천장



〈그림 56〉 속초 신흥사 명부전 조합천장

5) 명부전(冥府殿)

지장보살은 석가불이 입멸한 후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서원을 세우신 분이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지장전이 주로 건립되었으며, 원나라 침입 이후 도교의 〈예수시왕생칠경〉에 근거한 시왕신앙을 흡수하여 시왕전(十王殿)이 건립되었다. 이후 이들을 하나로 묶어 명부전³³⁾으로 바뀌게 되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어 지장전(地藏殿), 유명계의 시왕을 봉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한다.

명부전은 정면 3칸 규모가 4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쌍계사 명부전 등 2동만 정면 5칸 규모이다. 통도사 명부전은 정면 5칸 규모로 퇴칸은 창고로 사용하고 가운데 3칸만을 전각 용도로 사용하는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속초 신흥사 명부전은 어칸과 퇴칸의 창호 크기를 달리하여 입면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붕은 통도사 명부전 1동을 제외한 나머지 5동이 맞배지붕으로

33) 김현준, 1991, p.291

부속불전으로서의 위계를 반영하고 있다. 창호는 세살창이 4동으로 주류를 차지하며 교살창이 1동, 꽃살창이 1동이다.

불전 내부에 단집을 시설한 사례는 흥천사 명부전이 유일한데 여기서는 지장보살 상부를 포함 명부 시왕 상부에도 모두 단집으로 장엄하고 있다. 단집의 형태는 상부의 공포 부분이 생략된 보개와 운궁의 중간 형태이다. 천장은 연등천장이 1동, 우물천장이 1동이며 나머지는 신흥사명부전(그림56)과 같이 우물천장과 사천장의 조합이 2동, 쌍계사명부전(그림55)과 같이 전체를 귀틀없이 평천장으로 한 사례가 1동이다.

〈표 11〉 명부전 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창호	공포	불상	천장	단집	비고
흥천사 명부전	1855	3×2	맞배	세살	다포	지장 시왕	우물 사천장	운궁	
장안사 명부전	1744	3×2	맞배	세살	익공	지장 시왕	평천장 사천장	-	
쌍계사 명부전	1710 중수	5×2	맞배	세살	익공	지장 시왕	평천장	-	
수다사 명부전	1748 중수	3×2	맞배	세살 정자	익공	지장 시왕	연등	-	화반 생략
속초 신흥사 명부전	1737	3×2	맞배	꽃살	익공	지장 시왕	우물 사천장	십자 단집	
통도사 명부전	1760 개건	5×2	팔작	교살 판문	다포	지장 시왕탱	우물	-	양퇴칸: 창고 외벽; 판벽

3. 신중단(神衆壇)

1) 산신각(山神閣)

우리나라는 구토의 7할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예부터 산악 숭배 신앙이 오랜 뿌리를 갖고 있다. 불교가 이를 수용하여 불교를 보호하는 호법신중을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후 가람수호신의 역할과 함께 민중들의 복을 비는 대상으로 자리하여 수많은 산신각을 건립하게 되었다. 내부에는 산신상 혹은 산신탄화를 모시고 있다. 규모는 1-3칸 규모이며 익공계맞배집이 주류를 이룬다. 내부 천장은 평천장 등으로 간략히 처리하며 단집은 생략하고 있다.

2) 칠성각(七星閣)

칠성은 도교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신으로 수명장수의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칠성각은 우리 불교에서만 볼 수 있는 전각으로 여기에 봉안된 대상은 북두칠성이 아니라 이를 불교적으로 변용하여 7여래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구현하고 있다.

칠성각은 정면 1-3칸 규모로 건립되며 간략한 맞배집 혹은 팔작집으로 지어진다. 공포는 익공 등으로 간략히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호는 정자창 등으로 간략히 처리하며 내부 천장은 평천장으로 간략히 처리하고 단집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3) 독성각(獨聖閣)

독성각은 나반존자를 봉안한 전각이다. 나반존자는 천태산에서 홀로 선정을 닦고 계시는 성자로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 중생을 구제하고 복을 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신통 제일로 알려져 현세의 복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찾게 되어 고려시대 나한재의 개설 등을 계기로 정착하게 되었다.

독성각은 1-3칸 규모이며 익공계 맞배집이 일반적이다. 해인사 독성각은 팔각형 평면으로 독특한 사례이다. 창호는 세살등 일반 창호이며 내부 천장은 평천장 등으로 간략히 마감하고 단집은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삼성각(三聖閣)

삼성각은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등이 한 건물 내에 결합하여 모셔지는 형태를 취한다. 규모는 정면 3칸 정도의 소규모 전각으로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형식은 익공계맞배집으로 간략하며 내부 천장은 평천장, 불단위의 단집은 생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금강문(金剛門)

사찰에 따라 금강문을 별도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금강문을 천왕문 앞쪽에 건립한다. 금강역사는 흔히 인왕상이라고도 불리는 두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어 인왕문(仁王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분황사 모전석탑 감실 입구에 새겨진 2구의 인왕역사



〈그림 57〉마곡사 해탈문



〈그림 58〉마곡사 해탈문 금강역사, 동자상

상, 석굴암 입구의 금강역사상이 고대가람에서 인왕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금강문(표14)은 통상 정면3칸 규모로 양협칸은 벽체로 막고 어칸은 출입용으로 개방하는 문의 일반적 형식을 따르고 있다. 존상은 금강역사 2구와 코끼리와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 보현동자상 2구를 봉안하고 있다. 도갑사해탈문과 마곡사 해탈문(그림58)은 편액은 해탈문이나 금강역사와 동자상이 봉안되어 금강문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문은 가람 규모에 따라 다양한 건축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내부 마감은 연등천장 형식이다.

〈표 12〉금강문 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공포	존상	천장	비고
마곡사 해탈문	1864 중수	3×2	팔작	익공	금강역사 동자	연등	
도갑사 해탈문	1473	3×2	맞배	주심포	금강역사 동자	연등	
원주 송광사 금강문	19c	5×2	팔작	다포	금강역사 동자상	연등	

6) 천왕문(四天王門)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동서남북 사천왕을 모시는 문이다. 사천왕은 본래 고대인도의 신이었는데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천왕의 구실을 맡게 되었다. 이들은 천상계의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데 천왕문을 지나감은 모든 악귀가 물러난 청정도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수미산 중턱의 청정한 경지에 이르러 해탈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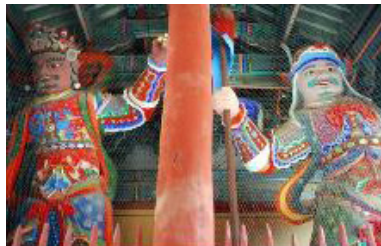
천왕문(표15)은 통상 정면 3칸내지 5칸 규모이며 어칸은 개방하여 출입 용도로 사용한다. 퇴칸이나 협칸은 통로측을 제외한 나머지 벽체로 막고 홍살 등으로 구분하여 사천왕상을 봉안한다. 건축형식은

〈표 13〉 천왕문 비교표

건물명	시대	평면	지붕	공포	존상	천장	비고
법주사 사천왕문	1624	5×2	맞배	다포	사천왕	연등	판문 판벽
쌍계사 사천왕문	1825 중수	3×2	맞배	익공	사천왕	연등	
통도사 천왕문	조선 후기	3×2	맞배	익공	사천왕	연등	



〈그림 59〉 법주사 천왕문



〈그림 60〉 법주사 천왕문 사천왕상

신중단의 건물임을 감안 맞배집(그림59, 60)이 일반적이다. 내부 천장은 서까래가 보이는 연등천장으로 간략히 처리한다.

4. 소결

건축 형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규모는 전체 112동 중 3×3칸이 가장 많은 45동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불교 억압 정책 이후 최소한의 불전 역할을 하기 위한 단위평면이 증가하는 추세³⁴⁾와 일치한다. 같은 정면 3칸이라도 상단불전은 어칸 치수를 크게 하여 중단의 불전과는 규모차이가 있다.

정면 5칸 이상은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등에서 빈도수가 많다. 이는 삼세불 등 존상의 수와 주불전으로서의 위계를 반영한 것이다. 중단전각 중 영산전 등에서 5칸 이상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현상도 나한상,천불상 등 봉안 존상의 수와 연관이 있다. 약사전은 상단 불전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신앙의 미약으로 소규모의 불전을 주로 건립하였다. 중단 불전은 정면 3칸 이하의 소규모가 주류를 이루어 위계차이가 건물 규모에도 반영되어 있다.

건축가구법은 다포계가 77동으로 전체의 68.7%를 이며 이들 중 65동은 상단의 불전으로 나머지는 12동은 중단,하단의 불전이다. 이는 가람내의 위계를 고려 가장 화려한 형식인 다포계를 상단 불전에서 선호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입면의장상 중요한 요소인 창호는 교살창이 30동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여 가람 내 전각에서 일반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생각

34) 이강민, 2006, p.74

된다. 정자살창과 세살창도 각각 19동, 20동을 차지하여 불전 전면 창호에서 특별한 의장이 일반적으로 선택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화려한 꽃살창은 25동으로 22.3% 정도가 채택하였다. 그중에서 위계상 가장 높은 상단 전각이 20동이며, 중단 이하 전각의 창호에서 특별한 의장적 고려가 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전 내부 천장 마감을 살펴 보면 우물천장이 26동, 층급천장이 24동으로 둘을 합하면 50동으로 전체 50%에 가깝다. 이는 상단, 중단의 전각에서는 최소한 전각내부에 장엄을 고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하단 전각에서는 연등천장이 주류를 이루어 위계가 천장 마감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러 가지 천장방식을 조립한 조합천장이 40동으로 단일방식으로는 가장 빈도수가 많다. 이는 천장마감면이 넓을 경우 종교적, 경제적, 의장적인 점에서 고려하여 다양한 마감처리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단집은 간략한 형태의 운궁이 24동이며 함입형을 포함한 보개는 36동으로 이를 합하면 60동이다. 운궁과 보개는 상단 전각이 중단 이하의 전각보다는 월등히 수량이 많아 위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단집을 생략한 전각은 52동이며 그 중에서 상단 불전 26동, 하단 불전도 26동으로 같은 숫자이다. 이는 상단과 중단 이하의 전각의 비교대상 숫자를 고려해 보면 중단이하의 전각에서 단집을 생략한 비율이 높아 위계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4〉 건축규모 비교표

불전명	1×1	3×1	3×2	3×3	3×4	5×2	5×3	5×4	5×5	7×3	7×4	합계
대웅전			6	25	1		8	2			1	43
대적광전			1	5			5	1				12
극락전	1		1	4	1		1	1				9
약사전	2	2	4	2								10
미륵전				1				1				2
영산전			4	2			2		1	1		10
나한전		1	3	2		1						7
관음전			1	4			1					6
문수전		1										1
명부전			4			2						6
금강문			3									3
사천왕문			2			1						3
계	3	4	29	45	2	4	17	5	1	1	1	112

〈표 15〉 가구형식 비교표

불전명	주심포 맞배	주심포 팔작	익공 맞배	익공 팔작	다포 맞배	다포 팔작	다포 모임	합계
대웅전	2				8	33		42
대적광전			1		5	6		12
극락전	2	1			3	2	1	9
약사전	1		1		5	3		10
미륵전								2
영산전	2		2		1	4	1	10
나한전	1		2	1	3			7
관음전	1	1		3	1			6
문수전			1					1
명부전	3		4			1		6
금강문	1			1		1		3
사천왕문			2		1			3
계	13	2	13	5	27	50	2	112

〈표 16〉 창호 비교표

불전명	교살	정자	세살	살창	꽃살	기타	합계
대웅전	14	7	4		14	4	43
대적광전	2	3	1		5	1	12
극락전	3	1	1	1	1	2	9
약사전	3	3	4				10
미륵전	1		1				2
영산전	3	3	2	1	1		10
나한전	2		2		2	1	7
관음전	2	2	1		1		6
문수전			1				1
명부전			3		1	2	6
금강문						3	3
사천왕문						3	3
계	30	19	20	2	25	16	112

〈표 17〉 천장 비교표

불전명	교살	정자	세살	살창	꽃살	기타	합계
대웅전	4			8	11	20	43
대적광전				1	5	6	12
극락전	3			3	3		9
약사전	2			4		4	10
미륵전				1		1	2
영산전	1			3	3	3	10
나한전	2		1	3		3	7
관음전	1			2	2	1	6
문수전				1			1
명부전	1	1		1		3	6
금강문	3						3
사천왕문	3						3
계	20	1	1	26	24	40	112

〈표 18〉 달집 비교표

불전명	없음	운궁	함입	보개	합계
대웅전	10	14	2	17	43
대적광전	7	1		4	12
극락전	2	1	2	4	9
약사전	5	2		3	10
미륵전	2				2
영산전	5	3		2	10
나한전	6	1			7
관음전	4	1		1	6
문수전	1				1
명부전	4	1		1	6
금강문	3				3
사천왕문	3				3
계	52	24	4	32	112

IV. 결론

본고는 가람 내 불,보살,신중 들의 위계가 가람 내 배치와 건축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 것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찰을 수호하는 신중을 봉안한 신중문은 외부에서 사찰의 중심영역으로 진입유도하는 축선상에 배치되며, 산신각 등의 민간신앙과 관련한 신중각들은 통상 사찰에서 가장 외곽에 배치된다.
2. 진입축의 정점에 상단 전각중 주불전이 자리한다. 다불전 영역일

경우 주불전과 상단 전각 중 기타 불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주불전과 병렬, 교축, 중축, 독립축을 이루며 배치된다. 이는 교리상, 지형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2. 중단,하단 전각은 상단 전각이 있는 중심영역에서 퍼져나가는 동심원적 구조와 유사한 배치 경향을 보인다. 동심원적 구조는 불교의 십법계 중 천인 이상의 영역을 수평적으로 전환한 도형과 유사하며 이는 불교적 우주관에서 유래한 것이며 3단에 다른 위계 차이가 잘 나타난다.

3. 건축규모는 3칸×3칸이 45동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조선시대 불교억압 정책 속에서 불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이다. 정면 5칸 이상의 규모는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 등에서 18동이 나타나는데 이는 삼존불,삼세불 등 봉안되는 존상의 수 등의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중단 이하의 전각 중 영산전,나한전에서 5칸 이상의 전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천불, 오백나한상의 수량과 관계가 있다.

정면 3칸 이하의 전각은 전체 36동이며 이중 중단이하 전각이 19동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위계 차이가 건물규모에도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건축가구법은 전체 112동 중 다포계가 77동이며 이중에서 상단 전각이 65동으로 이는 가람내의 위계를 고려하여 화려한 형식인 다포계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5. 창호는 교살창이 30동, 정자살창이 19동으로 많은 빈도를 보여 사찰 건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방식으로 보인다. 꽃살창은 25동으로 이 중에서 상단 전각이 20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은 상단 전각에 화려한 꽃살창을 배풀어 장엄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6. 천장은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우물천장이 26동, 조합천장이 24동으로 불세계를 상징하는 내부장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합천장도 40동으로 앞의 두 경우의 수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조합천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넓은 면적, 건물 내에서 상대적 위계 차이, 3단 전각별 위계 차이를 고려하여 택하였다.
7. 단집은 함입형을 포함하여 보개가 36동, 운궁이 24동으로 전체 60동에 사용하였다. 이는 불교적 상징의 일환으로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을 나타내고자한 장엄의 한 방식임을 보여준다. 단집을 사용하지 않은 곳이 52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단 전각에서는 주로 층급천장, 천장 일부를 변용하여 단집의 역할을 대신하는 등의 기법을 채택한 곳이 많으며, 나머지는 중단이하의 전각에서는 위계상 단집 자체가 생략된 곳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가람배치와 전각의 건축규모, 가구형식, 의장에서 불, 보살, 신중의 3단의 위계 차이가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 영천군, 은해사백흥암실측조사보고서, 1985, p.49
- 공주시, 공주마곡사영산전해체수리보고서, 2013, p.214-215
- 국립문화재연구소, 법주사팔상전 수리공사보고서, 1998, p.61
- 김도경, 지혜로 지은 집, 한국건축, 현암사, 2012, p.15-16
- 김봉렬, 조선시대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9, p.31-33
- 김봉렬, 불교건축, 솔출판사, 2000, P.38
- 김삼용,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동화출판사, P.144
-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 경서원, 1986, p.64-65
- 김현준, 사찰 그곳에 깃든 의미, 교보문고, 1991, p.291
-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고건축, 1987, p.197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11, 1989, p.6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1992, p.146-148
- 문화재청, 성혈사나한전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07, p.96
- 문화재청, 양산 통도사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4, p.165-166
- 배병선, 한국사찰건축 구성요소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134
- 보은군, 문화재청, 법주사원통전실측수리보고서, 2010, p.132
- 배병선,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p.257
- 이강민, 3칸×3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74
- 이정국, 고려시대사찰건축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7, p.196-197
- 장경호, 백제사찰건축, 예경출판사, 1991, p.436

- 전봉희, 이강민, 3칸×3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74
- 정병삼, 오늘 나는 사찰에 간다, 풀빛, 2003, 127
- 천득염, 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재9, 기문당, 2002, p.108
- 허균, 사찰장식, 돌배게, 2011, P.137-138
- 홍윤식, 한국의 가람, 민족사, 1997, P.319
- 홍윤식,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1988, p.86
- '99건축문화의해조직위원회, 건축문화자산 대구.경북, 1999, p.130
- Dietrich Seckel, 백승길역, Kunst des Buddhismus, 불교미술, 열화당, 1985, p.274

A Study of enlightenment hierarchic in Buddhist buildings of Korea

Kim, Bong Gon ex-President of Korea Nat'l Univ. of Cultural Heri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yout of buddhist temples and architectural style of 112 buddhist buildings which are designa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r this study, the buddhist buildings are grouped by three stages of buddhist enlightenment (Buddha, Bodhisativa, guardian god). Based on parallel, orthogonal, straight and independent axis, the main buddhist halls are connected to secondary halls. The Buddhist buildings of three stage are arranged on the similar concentric circle based on buddhist concept of universe. The survey of plan, roof style, bracket system, window pattern, ceiling style, Buddhist altar are conducted. Thus it come to a conculsion that the size, architectural style and design are closely related to the three stages of Buddhist enlightenment.

Keywords : Buddha, Bodhisativa, guardian god, three stages of
buddhist enlightenment, the similar concentric circle,
buddhist concept of universe, the size, architectural style
and design

